

보도일시 (인터넷) 2024. 6. 2.(일) 11:00,
(지면) 2024. 6. 3.(월) 조간

배포 2024. 5. 31.(금) 오후

한-노르웨이 수산협력 강화

- 양국 간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한 협력사업 활성화 기대
- 북극 협력, 녹색해운 등 해양·해사·수산 등 해양수산 전반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6월 3일(월)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장관 마리안네 시베트센 내스(Marianne Sivertsen Næss))와 수산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한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국은 수산 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으며, 마리안네 시베트센 내스 통상산업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개정된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양식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정부기관에 국한되었던 협력 대상의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수산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양식 및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와의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진단 진단기술, 양식어종 사료 개발, 혼획 저감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 증진과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 양국의 협력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약정 개정 서명식과 함께 북극 협력, 해운 탈탄소화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양자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북극 관련 연구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노르웨이의 ‘극지연구 협력 센터’가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요한 북극 협력 파트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강 장관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 해양수산 선도국가인 노르웨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과 노르웨이는 모두 바다 면적이 육지에 비해 큰 해양국가”라면서, “이번 한-노르웨이 수산분야 협력 약정 개정을 통해 수산기술 선진국인 노르웨이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병구 (044-200-5380)
		담당자	사무관	안효정 (044-200-5387)
담당 부서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330)
		담당자	사무관	이지언 (044-200-5342)